

‘압승’ 이재명 본선모드... ‘충격’ 이낙연 숨고르기

이재명, 지지층에 언행 조심 당부
원팀기조 살리기 최대한 몸 낮춰

이낙연, 간담회 등 주요 일정 취소
캠프 비상대책회의 향후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에 2연승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캠프의 무게중심을 ‘본선’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는 모습이다. 충청지역 경선에서 완패한 이낙연 전 대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선 첫 주말인 지난 4~5일 충청권 경선에서 이틀간 누적 54.72%의 득표율로 이낙연 전 대표(28.19%)를 멀찍이 따돌리고 선두 독주에 나섰다. 초반이지만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원에서 과반을 훌쩍 넘겨 압승을 거두면서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안팎의 평가와 달리 권리당원들도 누적 55.12%라는 몰표를 이 지사에게 안겼다. 당심과 민심 모두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한 셈이다.

이 지사 측은 본선선 들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상대의 검증 공세에 대응을 최소화한 것이 전략적으로 주효했다고 보고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별·계층별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며 본선 경쟁력과 실적 등 강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골이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해 원팀기조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내

비주류인 이 지사의 입장에서 경선 승리 이후 상대 후보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극복, 유기적 화합을 이뤄내는 게 1차 숙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30~40%가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를 인용한 언급을 내놨다가 ‘경선 불복 논쟁’으로까지 비화한 바 있다. 지난 4일 대전·충남 순회 경선장에서는 이 지사 지지자들이 ‘네거티브를 그만하라’고 외치고, 설 의원이 ‘귀를 열라’고 응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여전히 양측에 상당한 양극이 남아있음을 방증하는 장면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은 열성 지지층에도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경쟁 후보와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세월이로 비쳐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캠프내 기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숨을 고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6일 주요 일정을 취소한 것도 중원 2연전 대패의 ‘쇼크’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려 했던 대구·경북 발전전략 발표는 서면 보도자료로 대체됐고, 오후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는 전면 취소됐다. 또, 캠프 내 신국방안보특위의 지지선언 행사에는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대리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이 전 대표의 일정은 대폭 축소됐다.

캠프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내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충청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캠프는 오후에 열기로 했던 ‘주간 브리핑’ 행사도 순연했는데, 이를 두고는 향후 전략에 대대적 궤도수정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6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캠프는 약 64만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발표되는 ‘1차 슈퍼워크’ (12일)에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고, 추석연휴 이후 치러질 ‘호남 대전’에서 대역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 선거인단은 약 20만명으로, 충청(7만6000표)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최대 텃밭인 호남에서는 여론조사상 이 지사와 호극세를 벌이는 만큼 이 지역 공략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캠프 관계자는 “정책 능력은 물론이고 확장성이나 도덕성 면에서 본선 승리 가능성은 우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세균·추미애 ‘히비 쌍곡선’ ... 1차 슈퍼워크에 올인

정, 기대 달리 간신히 3위 턱걸이
추, “공고한 3등으로 올라설 것”
박용진·김두관도 완주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첫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턱걸이’ 3위를 하면서 깊은 위기감이 휩싸이는 모양새다.

탄탄한 당내 기반을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빅3’ 주자로 분류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혈혈단신’ 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불과 92표차 앞선 3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청 종합 순위에서 대전·충남표를 바탕으로 간신히 3위(2711표·7.05%)는 지켰지만, 세종·충북에서 추 전 장관에 밀려 4위를 한 것에 캠프 내부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당내 조직에 힘입어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적을 받아들 것이라는 캠프

프 안팎의 기대는 빛나갔다. 오는 7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정 전 총리는 신발끈을 조이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6일 SNS에서 “경선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몸을 풀고 끝인 지점을 향한 발걸음에 가속도를 내겠다”며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혀있었지만 이제 ‘정세균의 귀환’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오는 12일 64만명 규모의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1차 슈퍼워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가격리 영향으로 존재감을 모두 드러내지 못했던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1차 슈퍼워크에서 뒤집기를 하면서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깊은 고심의 기류가 일한다. 충청의 경우 캠프의 자원을 총동원해 한 달 가까이 이를 ‘올인’했던 지역이란 점에서 앞으로 이어지는 경선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도. 코로나 19 탓에 대규모 행사가 불가능하고 현장 투표가 최소화된 이번 경선에선 정 전 총리의 강점인 조직력

이 힘을 쓰지 못하는 양상도 약재다. 현역의원 하나 없이 활동하는 추 전 장관의 ‘팬덤’이 사실상 패했다고 보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

캠프에 적을 둔 의원 수만 20~30명에 달할 정도로 매머드급인 캠프 구성원들을 독려해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것도 과제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사기와 동력이 다소 떨어진 측면은 있다”면서 “4위로 경선을 마치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 1차 슈퍼워크 후 냉정한 분석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후보들도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추 전 장관 측은 세종·충북 3위의 여세를 이어가 1차 슈퍼워크에서도 정 전 총리를 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추 전 장관 측은 “일단 선거인단에도 권리당원처럼 적극적 투표율이 많이 공고한 3등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완주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로, 슈퍼워크에 대비한 메시지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6등’ 김두관 의원은 “성과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28%·윤석열 26.4%·홍준표 13.6%

KSOI 조사...이낙연 11.7%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 속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3위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0%, 윤 전 총장은 26.4%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전주보다 4.2%포인트 상승한 13.6%를 기록하며 이 기관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전주까지 3위였던 이 전 대표는 11.7%로 4위로 밀려났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4.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1.6%), 정의당 심상정 의원(1.4%), 민주당 박용진 의원(0.8%) 순이었다. 범진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8%

로 1위였고 이 전 대표가 18.0%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6.3%)과 추 전 장관(5.4%)이 각각 3~4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3.9%), 심 의원(3.5%), 민주당 김두관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범보수권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2%로 선두를 지켰으나 홍 의원이 26.3%로 바짝 추격했다. 2주 전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선을 넘긴 홍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전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며 윤 전 총장과 격차를 좁혔다. 이밖에 유승민 전 의원(10.1%), 안 대표(5.0%), 최 전 장관(4.6%),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3.1%),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1.9%) 순이었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관해 묻는 결과 응답자의 49.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2.7%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 (조건부)

대출 상담 환영

- 부동산담보대출
- 신용대출
- 정책자금(햇살론)
-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전성사거리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시에 연구원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